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실행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자 거버넌스 회의 결과보고

I 사업자 거버넌스 회의

- 일시: '21. 11. 29.(월) 10:00
- 장소: 상공회의소 회의실 (공사 4층 회의실)
- 참석자: 사업자 거버넌스 구성원 6명, 강사 1명, 강보신 팀장, 담당자 2명 총 10명

II 회의 결과(요약)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정책설명
 -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회학 박사)
- '21년 정책 이행 평가 및 '22년 정책수립 자문
 - 강보신 (제주에너지공사 감사인권팀장)
-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양상오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대리참석): 해상풍력이 환경파괴 논란이 있는데 해양환경 생태가 활성화 되고 있는 점을 에너지공사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강보신 (제주에너지공사 감사인권팀장): 저희 에너지공사에서도 홍보는 계속해오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제주도에 건의 하겠음.
 - 강용권 (제주전기농사협동조합 조합장):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출력제한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에서 ESS 장치를 서둘러 도입해야 CFI 2030 목표를 달성할 것 같고, 에너지 거버넌스가 2030 목표를 달성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이번 회의에서 끝날 게 아니라 회의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 회신을 받았으면 좋겠다.
 -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회학 박사):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10년전 먼저 선도적으로 발표를 해서 이끌어 왔는데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육지에서는 제주도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뛰어넘어 오히려 더 앞서가고 있다 거버넌스를 통해서 도민 의견을 잘 수렴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음.

- 강인석 (보타리에너지 부사장): 코로나 시대로 스마트 유통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서 제주도는 도서 지역이라는 아킬레스건으로 물류비가 항상 많이 부과가 되는데 제주도에 관광객, 물류량이 늘어나면 항공·배편 용량이 커지면서 탄소배출도 그만큼 커지는 부분도 있으니 탄소배출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육상뿐만이 아니고 해상도 필요
 → 강보신 (제주에너지공사 감사인권팀장): 사업자 거버넌스에서 건의된 의견을 취합해서 제주도에 전달하겠음.

III 현장사진

2021. 11. 29.(월) 사업자 거버넌스 회의

